

일본은행 전망보고서(전문): 물가 2%대 웃도는 흐름 지속 전망, 엔저·AI 수요를 새 변수로 명시

2026.08.03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일본은행은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한 전망보고서(Outlook Report) 전문을 8월 3일 공개했다. 지난 6월 정책금리를 1.0%로 인상한 이후 쌓여온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를 위원회 공식 문서로 재확인하는 자리다. 앞서 나온 요약본과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전문에는 엔화 약세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물가·성장 양면의 새로운 변수로 명시된 점이 눈에 띈다.

본문의 핵심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기준)가 202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목표치인 2%를 명확히 웃도는 수준으로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국제유가 상승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망 기간 후반에는 2% 근처로 다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배경으로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엔저에 따른 내구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기초적 물가상승률은 2026 회계연도 하반기에서 2027 회계연도 사이 목표 수준에 도달해 이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리스크는 여전히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고, 성장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 잡혔다고 봤다. 중동·발 리스크는 대체 공급망 확보가 진전되면서 직전 보고서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2026 회계연도 물가 전망치 자체는 정부의 여름철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효과로 소폭 낮아졌는데, 이는 정책 기조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 요인에 따른 조정이다.

이번 전문판이 시장에 주는 함의는 방향성 재확인에 가깝다.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전망은 일본 국채(JGB) 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엔화 강세(달러·엔 환율 하락) 압력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일본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1년래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달러·엔 환율도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태다. 이런 흐름과 오늘 발표 내용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닛케이지수 입장에서는 AI 관련 기업 실적 기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주가 적정성)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AI 투자 수요가 실제로 물가·성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 수요가 과열될 경우 조정 리스크로 번질지 여부다. 일본은행도 이번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새로운 핵심 변수로 병기했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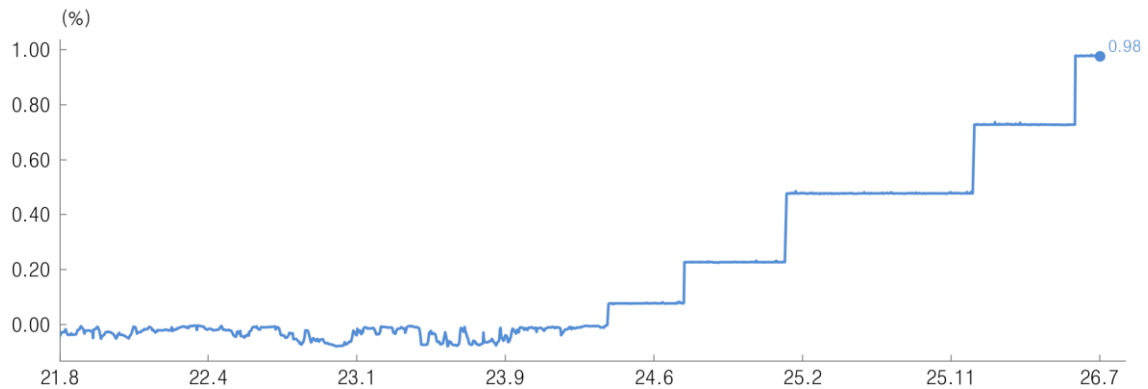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03 (이번)	CPI 2% 명확한 상회 전망과 AI·엔저 발 물가압력 부각으로 추가 인상 경로의 지속이 정당화되며 현재 고금리·엔화 강세 흐름과 정합적이다.
2026-07-31	중동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근원 물가 관이 불변하여 정상화 경로의 지속이 정당화되고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된다.
2026-05-18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인플레이 상방 이탈 방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명시하여 인상 경로 지속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다.
2026-04-01	스태그플레이션 베이스라인 속 인플레이 상방 이탈 방지를 최우선 하되 데이터 의존적 접근으로 조건부 인상 경로를 유지한다.



일본은행 전망보고서: 핵심 전망 및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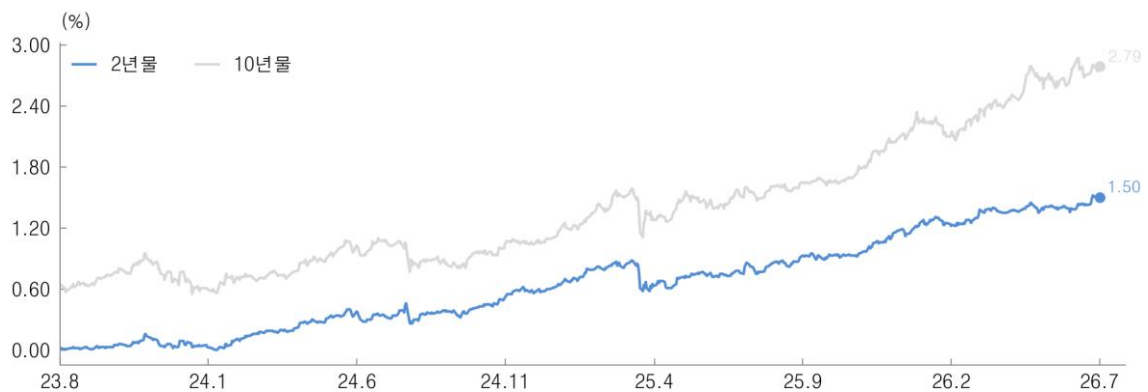
지표/요소	평가 및 전망	근거/배경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202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2% 명확히 상회, 이후 2% 근처로 수렴	원유가 전가, 반도체 가격 상승, 엔화 약세
근원물가(에너지 제외)	2% 상회하는 수준 지속	반도체 가격 상승, 엔화 약세로 인한 내구재 가격 인상
기조적 물가상승률	202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2027 회계연도 사이 목표 달성, 이후 유지	임금-가격 선순환 강화
경제성장률	2026 회계연도 원유 교역조건 악화로 감속, 2027 회계연도 재가속	정부 대책, 임금인상, AI 수요가 하방 지지
물가 리스크	상방 편중 (우상향 우려)	엔화 약세 물가 전가력 확대, AI 투자 과열 가능성
성장 리스크	대체로 균형	중동 리스크 감소(공급망 안정화), 미국·중국 불확실성
엔화 약세	물가 상방 요인으로 명시화된 변수	수입물가 급등, 기업의 임금·가격 인상 행태 변화
AI 관련 수요	성장·물가 양면 새로운 핵심 변수	기업 투자 수요 가속, 과열 시 조정 리스크

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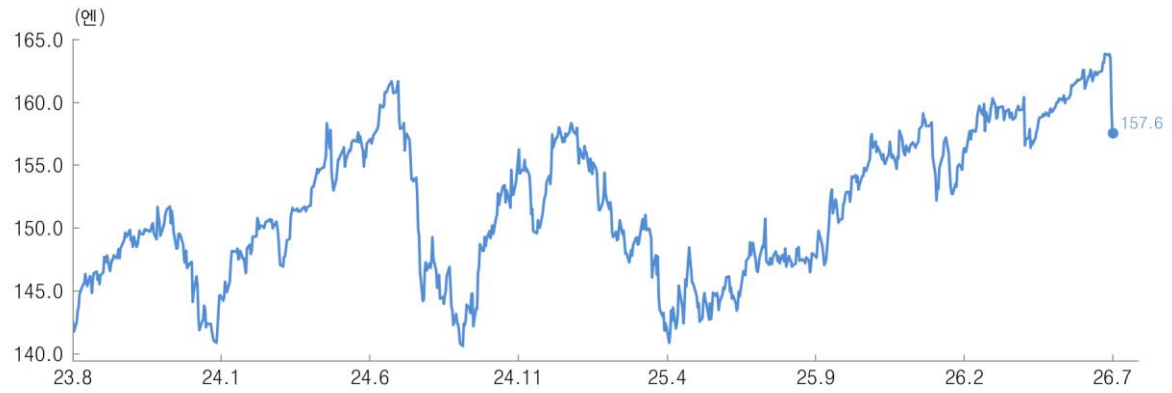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달러 환율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